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역사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과거를 거울삼아 새로운 역사를 그려내기도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역사에서 참정권은 여성보다 흑인에게 먼저 주어졌다. 2008년 미국의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미국 역사 232년 만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정권이 여성보다 흑인에게 먼저 주어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에 성공하여 오늘날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GDP의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든 훌륭한 리더십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패사례도 만나게 된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가 만들어낸 자랑거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의 산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군사정권 30년 간 GDP 48.8배 성장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 건설을 위한 다방면의 파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초대 정부는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에 무너졌다. 그 후, 대한민국 2대 정부는 혼돈 속에서 짧은 수명을 다했고, 1960년 우리나라 GDP는 39억 달러, 국민 1인당 GDP는 156달러였다.

5.16혁명 후, 임시정부를 지나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을 건립하고 배고픈 국민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책을 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1970년 우리나라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42억 달러와 133달러로 1960년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GDP 대비 10년간

인구가 650만여 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 도입한 새마을 운동과 울산석유화학공단 건설 등 중화학공업은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했다. 그로인해 1975년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104억 달러와 300달러로 국민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서거 후인 1980년,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388억 달러와 1천37달러였다. 5년 만에 각각 3.5배 이상의 성장을 이룩함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GDP 1천 달러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국가 산업을 일으킨 정부라고 기억하고 있는 30년 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천 달러였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초는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처음 수출하여 큰 뉴스를 만든 해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7년이니 그동안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사건으로 외국에 진출했던 과학기술인을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여 한국 과학기술연구원을 만들었고(1966년), 과학기술인을 후대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기술인이 되게 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를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었다. 반면에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으로 위수령이나 계엄령 등이 발효되어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던 시기로 점철되기도 했던 애증의 세월이었다.

그 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7년 단임 임기를 들고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 가슴에 새길 만한 두 가지 업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재임 중 경제성장률의 두 자리 숫자 성장이라는 기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이었다. 1985년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841억 달러와 2천79달러가 되고, 다시 5년 만에 두 배의 성장을 기록한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마치 모터가 달린 자전거처럼 질주하였



글 **최순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sjchoe@inha.ac.kr

글쓴이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한국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다. 그 후,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개최된 '88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을 국제무대에 알린 획기적 사건이 되었다. 그와중인 1990년, 우리나라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1천 867억 달러와 4천303달러로, 1995년 대비 또 다시 두 배의 성장을 기록한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 국민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통치 하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그 시기의 경제 성장은 엄청났다. GDP는 무려 48.8배, 1인당 국민소득은 27.6배의 성장을 이뤘다. 군사정부라는 경직된 생활환경과 경제성장을 바터제로 교환하는 인내와 희생의 삶을 살았던 시기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다.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확대

1993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시작되었다. 금융실명제와 육군의 하나회 해체 등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있었다. 경제도 잘 나아가 1995년 GDP와 1인당 GDP가 각각 3천988억 달러와 8천940 달러로 두 지수 모두 1990년에 비해 두 배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그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주었다. 바로 1997년의 IMF 외환 위기였다.

그 후, 1998년 정치가로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간 승리라는 팻말을 들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1997년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하면서 2000년 GDP와 1인당 GDP를 각각 5천787억 달러와 1만2천585 달러로 만든다.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여성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 정부 조직법에 여성부가 만들어지고, 여성 장관을 임명했으며, 정부 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여성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여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정부 위원회에 여성이 20~30% 참석하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이는 여성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들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령이 공포되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의 확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혁신적 변화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정이 돋보였다. 참여정부에서도 역시 취약층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며, 정권 초기에는 여성 장관도 여럿 임명되었다. 또한 각종 정부 위원회에 일정 부분 여성의 참여를 독려했은 물론 여성 과학기술자를 격려했다. 특히,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에 최초로 여성을 임명함은 물론 여성과학자가 연구제안서의 책임자가 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등 크고 작은 육성 및 활용 정책이 실현되었다. 경제도 꾸준히 성장되어 2005년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7천 914억 달러와 1만6천739달러였다.

지속적인 GDP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CEO 경험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선출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라는 쓰라린 아픔을 던져주었다. 그 후, 불어 닦인 글로벌 경제위기는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경제대국 G20에 속하게 되었고, 지난해는 G20 회기도 개최하였다. 2010년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1조15억 달러와 2만500달러로 역사적인 기록을 만든다. 꿈에 그리던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 시대를 상회한 쾌거였다.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GDP는 257배, 1인당 GDP는 131배 성장을 기록한 경제지표는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 역사 속에는 분명히 성장 주도산업이 있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있었고, 그 산업의 시운전자로 과학과 산업기술인들이 있었다.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다. 대통령 후보의 국민소득 수준 약속은 대통령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내년 대통령 후보는 국민소득 얼마를 약속하게 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1인당 GDP 3만~4만 달러를 약속했지만 그 목표 달성은 불가능했다. 특히 1인당 GDP 1만 달러가 2배로 향상되는데 꼬박 15년이 걸렸기 때문에 3만 달러도 쉬운 목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안다. 또한 1인당 GDP 3만 달러라면 GDP는 1조5천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1조 달러 이외에 5천억 달러의 GDP를 더 만들어야 하며, 지금까지 GDP에 기여한 성장주도의 기존 산업 이외의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 대안 발굴이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성해야 할까? 기초·응용과학을 아우르는 과학기술인의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㉔